

6·25 마흔한돌에 부쳐...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우는 5월은 도회지의 하늘을 찢빛으로 변하게 만들었고, 이제 호국 보훈의 달인 6월을 맞는다.

“6월”하면 우리 국민 모두 가장 먼저 6·25를 떠올린다.

1천만 이산가족을 낳게한 6·25의 발발은 김일성 북한 공산집단의 무력적화통일이라는 망상(妄想)이 주된 원인이기도 하지만, 『그들도 동족(同族)인데, 설마 무력으로 남침할까』하는 우리 국민들의 무사안일한 안보관에도 원인이 있었음을 깊이 반성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소련까지도 6·25 전쟁은 분명히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데도, 일부 청소년들이 6·25 북침 운운(云云)하는 것은 실로 경악하지 않을수 없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6·25의 남침사실을 유독 북한만이 아직까지 부인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하며, 현재도 무력통일의 망상을 버리지 못한채 남침용 땅굴을 20여개나 뚫어놓은(국방부 추정) 사실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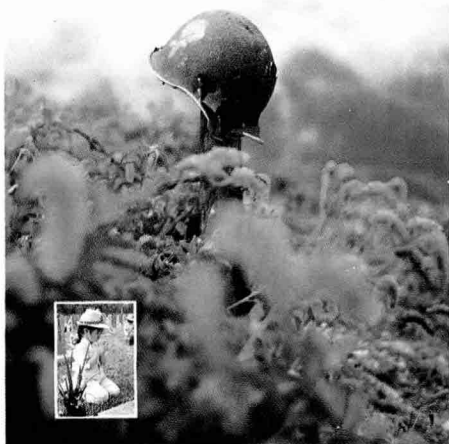
모든 기성세대(既成世代)들은 이러한 청소년들을 탓하기 전에 책임을 통감하고, 술선수법의 자세로 그들의 그릇된 안보관과 가치관의 선도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더이상 “방관(傍觀)이 미덕(美德)”일수는 없는 것이다.

6·25 전쟁은 모든 형태의 전쟁에 대비하라는 교훈을 전해주었으며, 자주국방의 중대함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특히 발발초기의 패인(敗因)이 T-34전차에 대적할 대전차포의 부재(不在)와 화력의 열세때문이었다는 것은 주지(周知)의 사실이다.

물론 초전필승의 신념—즉 무형전력(無形戰力)의 극대화가 중요하며, 실제로 6·25 당시 춘천방면의 제6사단의 선전(善戰)은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 그러나 “맨주먹 붉은피”로만 싸우는 시대는 지나갔다. 첨단(첨단)의 무기체계만이 주권수호의 기본이며, 최근의 걸프(Gulf)戰은 이를 확인시켜 주었다.

이란—이라크 戰에서 이란은 F-15등 첨단(첨단)의 전투기를 비롯한 최신 무기체계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외국에 의존하는 획득체계 문제로 인해 한낱 「고철덩어리」에 불과하였다. 결국 “외세에 의존하는 자주권 수호는 메아리”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기에 “자주적인 방위산업 육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되는 지역이 있다면, 그곳은 한반도』라고 우려한 체니 美 국방장관의 말은 오늘을 사는 우리 국민 모두가 가슴에 새겨두어야 할 명언(名言)이다. *



* 표지이야기

1천만 이산가족을 낳게한 6·25가
어연 마흔한돌을 맞게 되었다
사진은 민족의恨이 서린
휴전선 비무장지대 스케치 사진이며
box내 작은 사진은
국립묘지를 찾은 우리 자녀들의 참배하는 모습

월간 國防과技術

창간 1979. 1. 1
등록번호 라-2849
발행인 柳 纘 佑
사단법인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회장
편집인 羅 柄 扇
사단법인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인쇄인 金 思 鴻
천일인쇄사 대표
발행소 121-042
서울 마포구 도화2동 51-1
(星宇빌딩 13층)
한국방위산업진흥회
☎ (02) 716-0155
FAX (02) 716-1132
편집자 김 영 태
교 정 김 용 권
도 안 김 명 일
전산사식 정 현 욱
분해·제판 장 윤 태
사식도안 매일컴퓨터 ☎ 273-5336
인쇄 천일인쇄사 ☎ 266-4687